

장흥, 인구정책 결실...6년 만에 증가세 전환

LOCAL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급...결혼·출산 장려금도 확대 김성 군수 "지방소멸 대응...행복한 인생 설계 등 지원"

장흥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인구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6년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장흥군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 3월말 3만4319명으로 6년 3개월만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장흥군은 노인인구가 45%나 차지하는 지역으로, 이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매월 출생아 수는 10명 안팎인 반면 사망자는 6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교 졸업 시 도시로 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도 인구감소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군은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3월말 전월 대비 인구가 8명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입가구 희망 주거비 5년간 1320만원(2년간 월 30만원, 2~4년차까지 20만원, 5년차 10만원)

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8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300만~1200만원 지원, 2025년도부터 1~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학교살리기를 통한 인구 유입도 주목할 부분이다. 장평중학교장은 지역살리기 일환으로 학교를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학습분위기를 바꾸는 한편, 지역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기술이 기반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학교가 알려지고 유학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군은 또 주거지가 마땅치 않아 농촌 유학을 망설이고 있는 가정을 위해 농산어촌 유학마을 10세대를 조성했는데, 이곳에는 34명이 입주해 폐교 위기의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 탐유역 지원사업 5억원과 지방소멸기금사업 7억원으로 장평면 우산마을에 탐유역 유학마을을 조성

할 계획이다. 공기업과 함께한 지역살기에 귀감사례로 유학마을조성사업 6세대가 조성되면 활력을 잃었던 마을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인구 유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벨문학도시 장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gwangnam.co.kr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공성경찰서는 최근 공성중영초등학교 앞에서 불철착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서를 비롯해 중앙초 교직원과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함께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배려운전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했다. 사진제공=공성경찰서

고흥,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공모 선정

국비 100억 확보...청년 귀어인 어촌 정착 강화

고흥군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양식장과 기반 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어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뒤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공모에 선정된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고흥만 간척지 내 도덕면 동동리 일원 8ha 부지에 조성된다. 귀어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양식 품목인 새우를 주력 품목으로 청년 귀어인을 위한 창업 교육과 양식시설을 조성해 양식 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고흥군은 청년 귀어인들이 양식 관련 교육이나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기

회 부족하고,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잡고 있는 만큼,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해 청년 귀어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지역 내 정착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한 농수축산 스마트벨리화를 통해 판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공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함평, 임대농기계 세차장 개장 무료 운영 기계 성능 저하 방지

함평군이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전용 세차장을 새롭게 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세차장 개장은 농기계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업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임대 농기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시간 사용에 따른 흙먼지와 오염물이 쌓여 기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세척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농업인이 부담 없이 농기계를 관리하고 편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압세척기를 비롯한 최신 세척 시설을 갖춘 전용 세차장을 마련했다. 해당 세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이상의 군수는 "농기계 세척과 유지관리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직결되는 필수 요소"라며 "세차장이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기 기자

광양,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6월 30일까지 접수...내년도 예산 반영

광양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광양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있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제안 분야는 △보육환경 조성사업 △청년 희망, 여성 안전, 어르신 건강 도시 지향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사업 △시정발전 위한 사업 등 2026년도에 반영될 예산사업이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보조금 사업 및 타 기관 소관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청·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등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제안사업은 우선 사업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진다.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는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며, 시의회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공모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시민참여'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보성, 군민 문화 격차 해소 앞장...순회공연도 추진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협약

보성군은 최근 전북 완주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지역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순회공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극단 불세출의 창작공연 '지역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의 지방 순회공연을 지원하고,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보성군을 비롯해 양주신문회예술회, 완주향토예술문화회, 공연단체 '불세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보성군은 지역 공연장인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공연 유치·운영을 지원하고, 공연 홍보와 마케팅, 관객 유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성군은 최근 전북 완주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지역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순회공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토속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공연으로, 극단 불세출의 독창적인 예술성과 현대적 무대 연출이 더해진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주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문화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11월 27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양태경 기자 lmt66@gwangnam.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리슈퍼맨과 함께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